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넘쳐나는 곳!
말레이시아의 보석,
코타키나발루

KOTA KINA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동쪽에 위치한 사바 주의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 이곳은 에메랄드 빛 바다와 풍광이 멋진 휴양도시이다.

산, 바다와 어우러져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무장한 최고급 휴양 리조트들, 수채화 같은 풍경과 눈부신 백사장, 야생의 자연과 문명이 어우러져 신비함을 뽐어내는 코타키나발루는 우리를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낮에는 시원한 바다를, 저녁에는 그림 같은 석양과 환상적인 야경을 즐기며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코타키나발루로 떠나보자.

글 이정미 기자 자료제공 (주)엘리트트래블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5시간의 비행기 여행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보르네오섬 북부에 있는 사바 주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한다.

코타키나발루는 요새를 뜻하는 코타(Kota)와 동남아 최고봉인 키나발루(Kinabalu)의 합성어이다. 이곳은 옛날부터 ‘바람 아래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태풍이 발생하고 이동하는 경로보다 아래에 있어 바다가 항상 조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인에게 유명한 사피섬

휴양과 관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있는 특별한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시내에서 약 30분 정도 움직이면 사피섬에 도착한다. 사피섬은 가야섬 바로 옆에 위치한 가장 작은 섬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섬이다. 사피는 한국어로 소를 뜻하는데, 가야섬과 사피섬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두 개의 섬 암벽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가 마치 소 울음소리처럼 들려 섬 이름이 소를 뜻하는 사피라고 지어졌다.

이 섬은 열대어와 산호초가 자연그대로 형성되어 있고,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수영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사피섬에 서식하는 원숭이들 역시 우리에게 별도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정글 트래킹 코스가 있으니 삼림욕과 색다른 체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필수 코스이다.

마음까지 사로잡는 휴양지 만타나니섬

에메랄드 빛 바다는 물론 남지나해협에 서식하는 열대어, 거북이, 상어, 바라쿠다, 버팔로피쉬, 마이크로피쉬와 부채 산호초를 비롯한 희귀종의 산호초 등을 쉽게 볼 수 있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만타나니섬.

만타나니섬은 코타키나발루 시내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다. 2004년에 개방된 만타나니섬 인근의 수심 5~6m 부분에서 즐기는 스노클링은 우리들의 발목을 붙들어 맨다. 형형색색 산호초는 물론 때를 지어 춤추듯 물러다니는 열대어들을 만날 수 있어 환상적이다. 운이 좋으면 바다거북과 수면 위로 나는 날치 때도 만날 수 있다.

마을에 사는 원주민들의 미소와 청정해역에 금빛 모래로 형성된 넓은 백사장 역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해양 스포츠의 천국 툰구압둘라만

평소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툰구압둘라만 해양국립공원 지역을 둘러보자. 툰구압둘라만은 1967년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지역은 마누틱, 사피, 마누칸, 술릭, 가야 등 산호초로 둘러싸인 5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메랄드 빛 바다, 깨끗한 자연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으로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дай버들과 자연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해안선에서는 제트스키, 페러세일링, 바나나 보트를 일 년 내내 즐길 수 있으니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러보기 바란다.

세계 등반가들이 꿈꾸는 키나발루산

코타키나발루 시내에서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이동하면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키나발루산에 도착한다.

지난 2000년 유네스코(UNESCO)가 말레이시아 최초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키나발루산은 해발 4,101m의 동남아시아 최고

봉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빚어낸다.

키나발루산은 세계의 등산가들이 평생 한번쯤 오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죽은 영혼의 산'이라는 별칭처럼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신성함이 느껴진다. 이 산을 오르려면 보통 1박 2일 코스로 등반 안내자를 동반해야 한다.

하지만 등산가가 아니면 어쩌랴.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 열대우림의 맹글로브수를 보트로 이동하며 만나는 야생원숭이와 버펄로, 반딧불의 향연 역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야생의 대자연과 아름다운 빛, 이곳이 지상낙원

키나발루 국립공원은 세계적인 동식물의 보고로 유명하다. 키나발루산의 낮은 지대는 열대 지역으로 저지대우림을 이루고 있고, 중간 지대는 저산대 참나무와 무화과나무, 철쭉 등의 온대 지역 나무들로 가득하다. 고지대에서는 산 정상을 중심으로 침엽수와 고산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키나발루산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또한 키나발루산은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신선한 청명함을 가지고 있어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아름다운 빛으로 물드는 일출이나 일몰, 야생의 대자연과 하늘 높이 솟아오른 키나발루산이 빚어낸 모습을 보고 싶노라면 '여기가 지상낙원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



코타키나발루의 최고급 리조트 벵서스

코타키나발루에는 최고급 리조트가 즐비하다. 그중에서도 6km에 달하는 최고의 화이트비치와 오염되지 않은 주변 환경과 잘 꾸며진 열대정원, 숨 막히는 열대우림을 갖춘 벵서스 리조트는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약 1,350만㎡의 거대 부지와 완벽한 주변 환경으로 이루어진 485개의 객실, 8개의 레스토랑 및 바(BAR) 등을 갖춘 벵서스 리조트에서는 각종 해양스포츠나 해변에서 하는 승마와 수영은 물론 스파, 테니스, 스쿼시, 골프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골프장은 18홀 72파 코스의 국제적인 챔피언십 코스로 모든 장비를 빌릴 수 있는데, 왼쪽으로 키나발루산의 장엄함,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남지나해 해변가, 뒤로 열대의 우거진 산림 속에 둘러싸여 있어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파노라마 화이트비치와 식물원과 같은 정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로 이루어져 205개의 객실을 갖춘 오션윙과 아름다운 가든 속에 자리 잡은 보르네오윙에서 낮에는 시원한 바다를, 저녁에는 그림 같은 석양과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며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사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 편안한 자유를 꿈꾸는 사람,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코타키나발루로 떠나보라. 많은 사람들에게 치여서 휴식을 취하는 건지, 사람 구경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여행이 아닌 편안하고 환상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